전북금연지원센터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금연성공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용동 344-2) 원광대학교병원 외래1관 1층
TEL | 063) 859-2400 ~ 2410 FAX | 063) 859-2414

전주매일

전주매일

2018년 12월 28일 금요일 (음 11월 22일) 제2200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7일 전주시 노송동 주민센터에서 직원들이 '얼굴 없는 천사'가 기부한 5만원권 다발과 동전이 가득찬 황금색 돼지저금통을 정리하고 있다. 얼굴 없는 천사의 기부는 2000년부터 시작돼 19년간 6억여원이 넘는 성금을 기부했다.

'얼굴 없는 천사' 찾아오다

"소년소녀 가장 위해 써달라"… 올해 5020만원 기부

2000년 이후 19년째 노송동에 20여차례 걸쳐 6억원

또다시 '얼굴 없는 천사'가 찾아와 따뜻한 마음을 전달했다.

전주시는 얼굴 없는 천사의 선행과 그의 행적을 쫓아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천사시민들이 늘면서 '천사도시'로 불려왔다.

전주 노송동 주민센터에 한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40~50대 중년남성의 목소리로 매년 이맘때면 찾아오는 얼굴 없는 천사였다.

내용은 "어려운 이웃에게 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딱 한 마디였다.

주민센터 직원들이 통화내용에 따라 확인하니 주민센터 지하주차장 입구에 A4용지 박스가 놓여 있었다.

상자에는 5만원권 지폐 다발과 돼지저금통 1개가 들어 있었다. 금액은 총 5020만1950원으로 확인됐다.

이름도, 직업도 알 수 없는 얼굴 없는 천사가 올해로 19년째 총 20여차례에 걸쳐 몰래 보내 준 성금은 총 6억834만660원에 달한다.

또한, 얼굴 없는 천사가 남긴 편지에는 큰 글씨체로 "소년소녀 가장 여러분 힘내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고 적혀있었다.

이 성금은 사랑의 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의 독거노인과 소년소녀 가장 등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노송동 얼굴 없는 천사'라는 명칭은 지난 2000년 4월 초등학생을 통해 58만4,000원이 든 돼지저금통을 중노2동 주민센터에 보낸 뒤 사라져 불리게 된 명칭으로 해마다 이 시기에 남몰래 선행을 이어오고 있다.

아울러 해마다 이어지는 얼굴 없는 천사의 선행은 전국에 익명의 기부자들이 늘어나게 하는 '얼굴 없는 천사'들이 나타나게 했다.

이와 관련, 노송동 일대 주민들은 이러한 얼굴 없는 천사의 뜻을 기리고 그의 선행을 본받자는 의미에서 숫자 천사(1004)를 연상케 하는 10월 4일을 '천사의 날'로 지정하고, 주변 6개동이 함께 천사축제를 개최하여 불우이웃을 돕는 등 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10년 1월에는 얼굴 없는 천사의 숨은 뜻을 기리고 아름다운 기부문화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노송동 주민센터 화단에 '당신은 어둠속의 촛불처럼 세상을 밝고 아름답게 만드는 참사람입니다.사랑합니다.'라는 글귀가 새겨진 '얼굴 없는 천사의 비'를 세우기도 했다.

2015년 12월에는 얼굴 없는 천사가 오갔을 주민센터 주변에 기부천사 쉼터를 조성했고, 옆 대로는 '천사의 길', 인근 주변은 '천사마을'로 이름이 붙여졌다.

작년에는 천사의 길을 따라 천사 벽화를 그렸고 올해에는 동 주민센터 입구에 천사기념관을 조성했다.

시는 그간 얼굴 없는 천사의 성금으로 생활이 어려운 4900여 세대에 현금과 연탄, 쌀 등을 전달해왔으며, 노송동 저소득가정 초·중·고교 자녀 10명에게는 장학금을 수여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는 노송동 얼굴 없는 천사의 선행으로 인해 따뜻한 '천사의 도시'로 불려왔으며, 얼굴 없는 천사와 같이 익명으로 후원하는 천사시민들도 꾸준히 생겨나고 있다."며 "얼굴 없는 천사와 천사시민들이 베푼 온정과 후원의 손길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강석훈 기자

순창 쌍치~정읍 산내 국지도 오늘 개통

55선 시설개량 마무리… 거리 1.7km 시간 3분 단축

쌍치~산내간 국가지원지방도가 28일 개통됨에 따라 지역주민들 교통이 편리해진다.

전북도는 순창군 쌍치면 쌍계리에서 정읍시 산내면 능교리를 연결하는 국가지원지방도 55호선 쌍치~산내간 국지도 공사를 마무리 하고 개통한다고 밝혔다.

전체 2.7km구간을 2차로 개량한 쌍치~산내간 국지도 건설공사는 지난 2015년 착공해 총 26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터널 1개소(380m), 교량 2개소(380m), 교차로 3개소 등 도로시설 개량을 추진해 왔다.

쌍치~산내 국지도 구간은 국도 30호선과 국도 29호선을 연결하는 남부 산악권의 주요도로로 내장산 국립공원, 구절초 축제장, 강천산 등 주요 관광지 접근도로이나 그동안 도로폭 협소, 선형불량, 농기계와 차량 혼재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높고, 특히 구절초 축제시 극심한 교통정체와 겨울철 빙판길로 인해 통행에 어려움을 많이 겪어왔다.

이번 도로개통으로 기존도로를 이용할 때보다 운행거리는 1.7km, 운행시간은 3분정도 단축되는 효과와 함께 지난 4년 동안 지역자재 및 지역업체 공사 참여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됐다.

또한, 기존도로의 위험요인이 감소됨은 물론 원활한 교통소통과 지역접근성 향상과 함께 최근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구절초 축제장 교통 혼잡도 해소될 전망이다.

도 이용민 건설교통국장은 "순창군, 정읍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계획기간 내 차질 없이 공사를 마무리하게 됨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면서, "앞으로도 도내 주요 지점 간 도로망 구축으로 생동하고 발전하는 전북도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군산~서천 잇는 '동백대교' 개통

군산과 서천을 잇는 동백대교가 27일 오후 5시부터 공식적으로 개통했다.

군산시와 서천군을 잇는 총 길이 3.185km의 동백대교가 지난 27일 오후 5시부터 공식적으로 개통했다.

동백대교 개통으로 금강하굿둑을 이용하던 차량 운행 거리가 기존 14km에서 4km로 줄어들었으며 운행시간도 30분에서 5분으로 크게 단축됐다.

2008년 착공 공사비 2천380억원을 투입해 왕복 4차로(폭 20m)로 건설된 동백대교는 24시간 모니터링 폐쇄회로(CC)TV 8대, 안개등, 습윤 염수 제설장비 등 자동화 안전시설이 설치됐다.

또 겨울철 교통안전을 위해 제설작업과 긴급 낙하물 제거는 군산시가 맡고 전주국토관리사무소가 염화칼슘 등을 지원한다.

군산시와 서천군은 동백대교의 관광자원화를 위해 아치교 구간(160m)에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했으며 다리 개통을 계기로 두 시군은 공동번영을 위한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관광프로그램을 공유할 방침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태권도 전문 방송채널 설립을"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촉구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박병술 전주시의회의장)는 국내외 태권도 인구의 저변 확대와 태권도의 세계화를 위한 태권도 전문 방송채널 설립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27일 무주군의회에서 열린 제240차 월례회의에서 태권도 전문 방송채널 설립을 위한 건의안을 채택하고 국내외 태권도 인구의 저변 확대와 이를 통한 국가 전략 관광 상품화, 올림픽 종목 퇴출 위기에 몰린 태권도의 올림픽 영구 종목화 및 태권도를 통한 우리 문화의 세계적 진출이라는 과제들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태권도 전문 방송 채널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문재인 정부 태권도 10대 문화 콘텐츠 추진 방안 중 태권도의 미래 발전 전략과 정책 과제에 '인터넷 태권도 TV' 개설 후 CA-TV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국내는 물론 전 세계로 태권도의 영상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송출함으로써 태권도 인구의 저변 확대와 태권도의 세계화라는 국가적 목표도 달성하기 위해 태권도 전문 방송 채널 설립이 더욱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협의회는 "우리나라가 종주국인 태권도의 지구촌 속의 위상은 전 세계 209개국 8천만 명이 수련하고 있는 한류(韓流)의 진정한 원조로서 인종과 언어, 국경과 피부색을 넘어 지구촌 8천만 명이 한결같이 우리나라 말로 차렷! 경례! 를 외치고 있다"며, "이들이 태권도 종주국 한국 방문을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 문화의 세계화 관점에서 가장 성공한 사례가 아닐 수 없다"고 태권도 전문채널 설립의 당위성에 입을 모았다.

박병술 회장은"국기(國技)로 지정된 태권도가 세계적인 스포츠로 발전해 한류문화 확산 및 국위선양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협의회에서는 전 세계 8천만여명의 태권도인에게 태권도 관련 교육기회 확대 및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여 태권도 인구의 저변 확대와 태권도의 세계화를 위한 전문 방송 채널의 조속한 설립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는 건의문을 국회의장, 국무총리, 문화체육관광부부장관 및 각 정당 대표 등에 보낼 계획이다.

/송효철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전북도, ICT 발전협의회 총회

전북도와 전북도 ICT발전협의회는 27일 오후 3시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임상규 전북도 기획조정실장, 도내 ICT관련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전북도 ICT발전협의회 총회'를 개최했다.

전북도 ICT발전협의회는 산·학·연·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ICT분야 정책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기구로서 전북도가 디지털사회로의 선제적 대응 및 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ICT융·복합시대에 선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2014년 7월에 창립되었다.

이번 총회에서는 신구 임원 이·취임식을 통해 그동안 이끌어 주신 송관호 의장이 이임하고, 전북대 조기환 교수가 3대 의장에 취임했으며, 전라북도 ICT융복합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숭실대학교 송관호 교수와 전주대학교 한동숭 교수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새로 취임한 조기환 교수는 현재 전북대학교 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 교수로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컴퓨터연구단 선임연구원, 국가과학기술연구망 자문위원, 전북대학교 ITRC 공공안전정보기술연구센터 센터장, 한국정보과학회 이사, 감사, 부회장 등 활발한 활동을 벌여왔다. /김진성 기자